

10대 IT융합전략산업

IT KOREA 미래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살펴본다. IT융합 정책방향에서, 먼저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와 공정효율화를 기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자는 것이다. 자동차분야에서 MS와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11월 차량IT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조선분야에서 IT기반 건조공법과 지능형 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IT융합기반을 확충하여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의료분

야에서 유헬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방분야에서 경제감시로봇 시스템사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에서 범국가적 지능형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다. 전력분야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교통분야에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추진한다. 범추적 차원에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도 수립한다.

융합 핵심과제로 파급효과가 큰 10대 IT융합 전략산



IT융합의 원천인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보면,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이다. IT 산업 구조와 형태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적 변화를 본다.

업의 육성에 주력한다. 국가 융합 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융합기술용 R&D투자를 확대한다. '09년 4.5%에서 '13년 10%로 올린다. IT융합 거점 구축과 융합 기반을 조성한다. IT융합포럼을 확산하고 10대 전략분야별 산업 IT융합 센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범국가 차원의 그린IT국가전략을 수립하여 IT의 그린화, IT에 의한 그린을 추진한다.

IT융합의 원천인 시스템반도체의 육성을 기한다. 주요 연계형 시스템 반도체의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차량용 반도체 공동개발에 나섰다. 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핵심 전략분야별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보면,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이다. IT 산업 구조와 형태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I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적 변화를 본다.

의료+IT는 누구나 원하는 위치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u헬스의 활성화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비용의 절감등 다양한 혜택과 산업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선 IT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디지털병원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의료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유망분야다. 디지털병원은 원내 각종 의료정보기기를 연동해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진료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로봇+IT는 독자적인 시스템 형태로 움직여왔던 감시·경계시스템이 빠르게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감시 로봇간 결합 및 시스템 연동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기능과 활동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T기술 기반의 사회안전로봇은 기존의 수동형 감시·보완시스템에 능동적 지능을 붙여넣는 작업이다. 사회안전로봇시스템에 활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인지, 능동형 이동이 가능한 로봇시스템 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자동차+IT는 미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기구가 아니라 반도체, 통신, 방송, 네트워크, SW 등 첨단 IT 요소가 모두 들어간 플랫폼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인포테인먼트가 입체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라이프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조선+IT는 조선의 디지털화는 야드에서 선박내부, 지능형 항해 시스템까지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래 선박은 선박 자체가 유무선 신경망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수천, 수만개 센서와 제어기들이 연결돼 원격제어를 받게 된다. 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및 각종 센서 연동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항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며, 선박의 각종 센서 및 장치들을 원격에서 유지보수하고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이 구축된다.